광주, 대학 태권도 '금빛 발차기'

조선대 여가부장관기 종합우승 임예은 이새인 1위…김은지 3위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호남대 대학선수권 금 1·은 1 김우중 우승・김진성 준우승

조선대, 호남대 태권도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선전했다.

조선대는 제21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호남대는 전국대 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겨루기 금메달 1개, 은 메달 1개를 수확했다.

27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태권도부 임예은 이 새인·김은지가 체급별 겨루기 종목에서 각각 1위 (-53kg), 1위(-67kg), 3위(-53kg)를 차지해 대 학부 종합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들은 "전국대회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 이라며 "수상 계기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꾸 준히 노력하고 단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태권도부를 이끌고 있는 김병기 감독은 우수 지



여가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종합우승한 조선대 선수단.

도자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 대회는 지난 16일부터 8일간 진천군 화랑관 에서 열렸다. 한국여성태권도연맹과 진천군체육 회가 주최하고 진천군태권도협회에서 주관, 2500 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호남대 태권도 경호학과는 지난 26일까지 경상

남도 통영체육관에서 열린 제49회 전국대학태권 도개인선수권대회 겨루기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 달 1개를 획득했다.

김우중(2년)은 남자 -63kg급 결승에서 시종 우 세한 경기력을 발휘한 끝에 체급 정상에 올랐다.

김진성(2년)은 +87kg급 결승에 올랐으나 발등



호남대 김우중(왼쪽)과 준우승한 김진성.

부상을 당해 중도에 경기를 포기, 아쉽게 준우승 을 차지했다.

호남대학교 태권도경호학과는 이번 대회에 남 자 7체급, 여자 1체급에 총 15명의 선수들이 출전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댄스스포츠 '금메달 싹쓸이'

빛고을배 전국대회 3개 조 출전해 금메달 3개 휩쓸어

전남댄스스포츠연맹 선수들이 올해 처음으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했다.

27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댄스스포츠연 맹 소속 선수들이 지난 24일 광주시 빛고을체육관 에서 개최된 제16회 빛고을배 전국댄스스포츠 대 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댄스스포츠연맹 선수들은 3개 조가 출전, 3 개 부문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김동수·홍인화(전남댄스스포츠연맹)조는11개 팀이 참가한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부문에서 눈부 신 성과를 일궈냈다.이들은 왈츠, 탱고, 비에니즈 왈츠 3종목에서 1위, 폭스트롯과 퀵스텝에서 2위 를 차지, 종합 1위에 올랐다.

김민수·김나연(전남댄스스포츠연맹)조도라틴 댄스 5개 종목인 삼바, 차차차, 룸바, 파소도블, 자 이브 전 종목 1위를 차지했다.

임진수/임세빈(전남댄스스포츠연맹)조도아마 추어 스탠다드 부문을 석권했다.

왈츠, 탱고, 폭스트롯, 비에니즈 왈츠 4개 종목 에서 1위, 퀵스텝 2위를 기록, 가장 높은 시상대에

김재웅 전남댄스스포츠연맹 회장은 "올해 첫 대 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 기쁘다"며 "종합우승을 차지한 제 100회 전국체육대회의 영광을 재현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체육중 종별육상 금 2·은 1·동 2

광주체육중 육상부가 최근 대 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1회 전 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27일 광주체육중학교에 따르 면 기은결(3년)·서여주(3년)·박 태언(2년)·김희원(2년)이 1600 m 혼성계주에서 3분58초59 기록 으로 지난해 1위 팀인 전남체육중 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김희원은 주 종목인 400m에

서 본인 최고 기록(1분01초65)을 세우며 3위로 골인, 동메달을 추가했다.

윤준호(3년)는 남중 높이뛰기 경기에서 스피드 와 탄력을 바탕으로 개인최고 기록을 세우며 1위 를 차지했다. 처음에는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 으나 바의 높이가 점점 올라갈수록 긴장이 풀리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체육중은 전했다. 그는 오 명근(삼성중)과 동일하게 1m83cm를 넘었으나 시기차에서 앞서 1위에 올랐다.

윤준호는 "전 국가대표였던 오진욱 지도자님의 지도로 기초기술을 충실히 연습한 결과"라며 "제2 의 우상혁이 되겠다"고 밝혔다.



제51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1600m 금메달을 따낸 광주 체육중 김태언(왼쪽부터)·기은결·김희원·서여주. 〈광주체육중 제공〉

오희성(3년)은 세단뛰기에서 김건우(전북체 중)에 이어 2위(12m 29cm)를 기록, 은메달을 목 에 걸었다.

강명은·서여주·김희원·이하음은 1600m계주에 서 인천인화여중(4분14초34), 경기경안중(4분 25초33)에 이어 3위(4분33초77)에 머물렀다.

이준재 광주체육중 교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어 려운 상황임에도 선수들이 충실하게 훈련해 2022 년 첫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며 "5월에 열리는 제51회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 을 거둘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골프 임성재·김시우 항저우 아시안게임 간다

대표팀 합류…여자 프로는 불참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남녀 골프 대 표 7명이 최종 확정됐다.

대한골프협회는 27일 남자부 임성재·김시우·장 유빈·조우영과 여자부 방신실·김민별·정지현이 항 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임성 재와 김시우는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프로 선수 출 전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의 선발전 없이 세계 랭킹 을 기준으로 대표 자격을 얻었다.

26일 현재 임성재는 세계 랭킹 19위고, 김시우 는 51위다.

두 선수 모두 아직 병역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이번 대회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 혜택을 받

임성재와 김시우는 앞서 대한골프협회장배 아 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장유빈, 항저 우 아시아경기대회 아마추어 최종 선발전에서 우 승한 조우영과 함께 금메달 도전에 나선다.

여자부에선 프로 선수들이 모두 출전을 사양하 면서 전원 아마추어 선수들로 대표팀이 꾸려졌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과 8위 김효주, 9위 박인비, 11위 김세영 모두 대표팀 선발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아마추어 최종 선발전에서 1, 2위를 한 방신실과 김민별에 이어 3 위에 오른 정지현이 추가로 대표팀에 승선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골프 경기는 9월 15일 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중국 항저우의 웨스트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

베이징 쇼트트랙 오심 지적 최용구 심판 국제심판직 박탈 "예상한 결과…나는 당당하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 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관해 항의성 목소리를 냈 다가 국제 심판 자격 박탈 통보를 받은 최용구〈사진〉 심판 위원은 "예상했다"라 고 심경을 밝혔다.

최용구 위원은 27일 "국

제빙상경기연맹(ISU)으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은 건 지난 8일"이라면서 "2개 연맹에서 문제를 제기했 고, ISU가 최종적으로 심판직 박탈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라 괜찮다"라며 "난 떳떳하고 당당하다. 속 시원하다"라고 말했다.

쇼트트랙 한국 대표팀 지원단장 자격으로 베이 징올림픽에 참가한 최용구 위원은 쇼트트랙 남자 1000 m 준결승에서 한국 선수들이 편파 판정으로 탈락하자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신 발언을 했다.

당시 최용구 위원은 "이번 심판 판정은 오심을 넘어 고의적일 수 있다"며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는 모두 실격성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의 이 발언은 문제가 됐다. ISU는 국제 심판이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 지하고 있다.

ISU는 최근 기술위원회에서 최용구 위원의 발 언을 심의했고, 국제 심판 자격 박탈 징계를 결정

최용구 위원은 "ISU의 규정은 이미 알고 있었 다"라며 "당시 심판직 박탈을 감수하고 내 의견을 밝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제심판은 할 만큼 했다"며 "이제 는 후배들을 밀어주겠다. 4년 뒤엔 ISU 기술위원 직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LOTTE CINEMA I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2관 봄날, 서울괴담

4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5관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6관 | 앵커

9관 공기살인

7관씨네커플 | 쿠폰의 여왕, 앵커, 더 컨트랙터

8관 씨네커플

로스트 시티, 서울괴담, 달빛 그림자



GAC기획공연 포커스 해피 해프닝 일시 : 2022.05.01.(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